

# 자녀들로부터 부양 받기는 커녕 오히려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찡뻐다

### 함께 사는 '캥거루족'에 손주 양육까지 맡기는 '스크럼족' 증가

경기 수원에 사는 권모(56·여)씨는 지난해부터 집 근처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다. 전업주부로 살았던 권씨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아들 때문이었다.

어느 날 취업한 아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빠듯한 월급 탓에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는 게 이유다. 권씨는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나 큰 아들을 언제까지 보살펴야 하나'는 생각을 해보면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이모(61)씨도 마찬가지다. 34세 큰 딸이 15개월 된 아들까지 맡기면서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손자를 키우는데 체력적인 버거움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우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씨는 "서운하지만 못 봐주겠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다"며 "부부끼리 편하게 살기 위한 계획을 조금 늦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부모집에 얹혀살거나 경제적으로도 의존하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에 어른' 같은 자녀를 부모가 모시고 사는 셈이다.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에 자녀 양육까지 맡기는 '스크럼족'까지...

요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오히려 평생 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지난해 전

체 가구의 33.8%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미혼 청장년층 57.8%는 3인 이상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나이 들어 일하는 부모도 많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와 동거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34.2%는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23%에 그쳤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산다고 답한 고령자는 66.6%에 달했다. 특히 근로 또는 사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답변이 54.4%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부모 곁에 얹혀사는 자녀를 끌어안기 보다는 과감히 독립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11년 9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사는 한 노부부는 소비자 모임인 아디코(Adico) 소속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당시 41세였던 아들은 일자리가 있었지만 부모 집에서 살고 있었다. 노부부는 아들을 부양하면서 괴로웠다면서 6개월 이내에 독립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

전문가들 자녀 세대가 부모와의 각자도생(各自圖生)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이 돼서까지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고되더라도 살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장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젊은 층에서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꼭 자녀를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어버이날 기념주관을 맞아 지역사회 독거어르신들에게 케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다.

## 전주시 독거노인지원센터, 어르신에 카네이션 전달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는 어버이날 기념주관을 맞아 지역사회 독거어르신들에게 케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열었다.

어버이날 기념주간 행사는 지역사회 독거어르신의 어려움을 살피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로, (주)

전북도시가스, 서곡성당, 옥성골든카운티 요양병원, 아리랑하우스, 연탄은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4일에는 독거어르신들과 뮤지컬 '성춘향'을 함께 관람하고, 5일에는 독거어르신 안부전화 및 가정방

문을 통해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6일은 아리랑하우스에서 독거어르신 100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하고, 케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소중한 뜻을 되새겼다.

특히 이날 행사 중 전주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어버이은혜' 노래를 부르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

## 고창 성내서 돈사에 화재

### 돼지 700여 마리 타 죽어

7일 오후 2시50분께 고창군 성내면 한 돈사에 화재가 발생해 5개동 중 4개동이 불에 탔다.

이 불로 돼지 700여 마리가 소사해 9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진수 기자

## 금강하구둑 인근서 변사체 발견

지난 7일 오후 6시 25분께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인근에서 변사체 김모(남·57)씨가 발견됐다.

변사자는 금강하구둑 인근을 걷던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군산 채만식기념관쪽 해안도로 갯벌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사자를 군산해경에 인계했으며 해경은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 전주 신중양시장, 청년상인 창업점포 개장

### 10개 정식 영업 시작

전주남부시장 청년몰이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신중양에도 청년상인 창업점포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6일 신중양시장에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청춘밀당' (청년상인 창업점포 브랜드) 10개 점포 오픈식을 가졌다.

신중양시장 청춘밀당 10개 점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식 영업에 들어가 손님에 맞았다.

이번에 개장한 10개 점포는 신중양시장에 부족한 음식점 등 먹거리 위주의 점포로, 청년상인들은 이곳에서 새싹비빔밥과 떡볶이, 닭요리, 쌀국수, 한식, 고깃집, 막걸리 및 수제맥주 등을 판매한다.

신중양시장 청춘밀당은 전주시가 남부시장 청년몰처럼 전통시장 내 빈점을 활용해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

갈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구체화됐다.

시는 지난달까지 신중양시장 2층에 있는 빈점포를 리모델링해 10개의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상인 창업자 10명을 선발해 사전컨설팅 및 오픈준비를 해왔다.

시는 청년들의 창업공간인 청춘밀당이 신중양시장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문화공연을 펼쳐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정영숙 신중양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단장은 "전통시장은 상인들과 고객들이 점차 노령화가 됨에 따라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라며 "전통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도 창업에 성공하면, 젊은 고객들도 신중양시장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황금연휴 기간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잇따라

어린이날부터 이어진 황금연휴에 전북지역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7일 오후 1시30분께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경각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김모(54)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고창군수배 한국리조트 챔피언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여한 김씨는 돌풍으로 주낙하산이 접히면서 추락, 나무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주 기자

이에 앞서 도내에서는 지난 6일에도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10대가정용시업업면의 한 철탑(코레일 승전선로 30호)에 걸린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날도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한 유군이 보조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하던 중 철탑에 패러글라이딩이 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받은 한국전력 집계지사는 코레일과 긴급협의를 통해 해당 선로를 차단, 소방당국은 2시간만에 유군을 철탑에서 안전하게 구조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전주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부모가 병원이용이나 급한 사정으로 잠깐 동안 외출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큰 도움이 된다.

서비스 대상가정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을 둔 부모이며, 서비스이용료는 시간당 4000원 중 기본형은 2000원, 맛벌이 부부는 3000원씩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단, 36개

월 이상 아동과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63-905-6509)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산어린이집(063-283-6667), 열방으로 어린이집(063-227-7111), 소나무가정어린이집(063-904-5004), 한솔빛어린이집(063-243-9611) 등이다. /김영재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